

# 義務와 權利

젊은 후배 간호원들에게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 영 복

사람에게는 權利와 義務가 있게 마련이다. 적으면 적은대로 크면 큰대로 그 사람의 직분이나 자격이나 위치에 따르는 權利가 있는 동시에 義務가 있다. 義務를 이행하므로써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權限을 줄 때는 의무의 감당을 前提로 하고 주는 것이다. 의무와 권리는 손등과 손바닥과 같아서 언제나 表裏를 이루며 함께 따라 다닌다.

우리들의 家庭生活, 職場生活 또 는 社會生活에서 의무와 권리가 병행되지 않을 때 좋은 環境的 혹은 經濟的인 條件도 빛을 내지 못하게 된다.

職場에서 上司가 자기의 責任은 다 하지 않고 威嚴만 세우려고 할 때 우습꺼리가 되며, 市民 各自가 의무는 소홀히 하고 권리만을 내세울 때 그 社會는 혼돈 상태를 이룰 것이며 發展보다는 沈遲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한 團體 안에서든 團員 혹은 會員으로서의 基本義務인 會議참석, 會費納附, 會의 方針과 會則준수는 하

지 않고 會員으로서의 特權만을 주장할 수 없듯이 한 機關에서도 權利에 따르는 義務가 먼저 실천되어야 할 것이며 義務實踐의 所産으로 더 크고 重한 權限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 × ×

우리는 여기서 看護員의 義務와 權利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看護員하던 물론 免許있는 Professional Nurse를 의미하는 것으로 요사이의 專門的看護의 補助역할을 하는 看護補助員(nurse aid)이란 auxiliary group이 있어서 간호원의 지도감독 아래서 일하게 되었으므로 더구나 Professional Nurse로서의 義務와 權利를 철저히 인식하고 그 機能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될 것이다. 물론 業務의 수행을 위하여는 行政的인 뒷받침이나 各機關의 制度와 與件도 중요하지만 가장 基本的인 것은 각 간호원들이 自己의 位階를 잘 지키는데 있는 줄 안다. 位階를 잘 지킨다는 말은 看護員으로

서의 義務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동시에 看護員으로서의 權限을 正當하게 行使함을 말함이다.

“免許”라는 어휘가 義務와 權利를 동시에 表現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안다. 즉 免許의 定義는 어떠한 特殊한 業務行爲를 할 수 있도록 行政當局으로부터 權限을 부여받는 것인데 이 權限에는 免許所持者로서의 職責수행이 必須前提條件이 된다. 具體的으로 말해서 이 免許 없는 사람이 免許行爲를 業務트 삼을 때는 不法이 되는 동시에 免許所持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그 行爲를 拒否하거나 잘못된 行爲로써 大衆에게 被害를 입혔을 때는 또한 不法이 되는 것이다.

免許라는 말 自體가 法的인 資格을 말하는 것이므로 義務와 權利에도 法的인 制限이 따르나 免許所持者로서의 法的인 責任 以前에 看護員으로서의 職業的인 責任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과 한발자국 더 물러가서 人間으로서의 道義的責任 (moral obligation)이 앞서야 됨은 再論이 필요치 않다. 즉 우리가 看護員의 免許證을 들고 그 業務를 시작하는 날부터 看護學校에서 3년 내지 4년간 연마해온 看護의 知識이나 技術은 물론 그날까지 쌓아올린 敎養과 識見, 信念과 勇氣를 다 합쳐서 看護行爲라는 特殊任務를 통해서 우리의 義務와 權利를 驅使해야 될

것이다.

Webster辭典에 기록된 義務(duty)의 定義는 “道義感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로부터는 피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감독자의 명령에 따라서 하고 혹은 評價를 잘 받기 위해서 하기 前에 道義感과 使命感에 쫓겨서 意慾을 가지고 하며 한편 그 限界와 범위를 알아서, 하지 말아야 될 일로부터는 피하는 것도 義務의 하나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 × ×

한편 우리에게 法的인 權限이 부여될 때 우리들의 道義感과 使命感은 더 強해져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動機와 目標가 흐려지기 쉽고, 내게서는 權利만 내세우고 남에게서는 義務만 지적하려는 경향이 많아진다. Florence Nightingale 女史가 看護員의 登錄制를 反對해서 英國에서는 그의 別世後 1912년에야 비로소 登錄法이 實施된 事實은 우리의 關心을 모으고 있다. 즉 나이팅게일女史가 免許制를 反對한 理由는 看護는 理念과 使命感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客觀的 혹은 形式的인 資格과 條件이 이를 左右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 그가 다시 온다면 免許登錄制를 反對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으나 우리로서는 오늘날도 그의 理念과 主張을 배워야 될 것이다. 使命感! 그 얼마나 貴

하고 아픈다운 말이나? 우리 모두가 갖고 싶은 것이며, 우리의 言行心思와 一擧手, 一投足의 始發點이 바로 이 使命感에 있기를 바란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또는 언제나 使命感이 불타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이 免許간호원으로서 우리들의 職業的 혹은 事務的인 公務를 맡아 볼 때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強한 道義感이 있어서 時時刻刻으로 우리들의 行動의 決斷을 내려주어야겠다.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바른 길이고 옳은 行爲이다”라는 利他的이고 倫理的인 속삭임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自己中心的인 安逸과 利害打算이 머리를 들게 된다. 옳고 바른 것으로 行動의 基準을 삼을 것이며 편안하고 有益한 것으로 基準을 代置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마음의 방향은 어떤 重大한 일을 決定하기 직전이나 體驗하게 되는 줄 알고 있으나 사실은 日常生活에 지극히 적은 일 특히 業務 수행하는데 시시각각으로 부딪치는 일들이므로 看護員들에게 있어서는 순간적인 마음의 決斷이 늘 필요하게 마련이다. 이 적은 決斷과 意圖가 모여서 實力있는 看護員, 誠意있는 간호원, 믿음직한 간호원, 부지런한 간호원, 그리고 協調的인 간호원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 × ×

看護員의 義務란 무엇인가? 그것은 職位에 따라서 또한 地域社會, 機關, 또는 看護의 對象, 혹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등에 따라서 그 內容과 性格이 다를 것이다. 여기서 나는 그 職務의 內容을 列擧하지는 않겠다. 다만 어떠한 태도와 마음 가짐이 義務를 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強調하고자 한다.

1. 맡은 일에 충실하자. 被勸的으로 움직이지 말고 머리를 써서 일을 만들어 내자. 우리들이 간호학교 3년 내지 4년간 배운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 모든 지식과 기술을 살려서 “많이 배운 간호원은 참 다르다”라는 말을 듣도록 좀 熱意를 내고 극성을 부리자. 看護員의 本來의 使命은 醫療의 補助보다도 환자의 精神的, 肉體的 平安을 도모하며 그의 環境을 安全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더 큰 일임을 알고 命令과 處方에 의한 것 뿐 아니라 간호원이 獨自的으로 할 수 있는 基本看護에 힘쓰도록 하자. 看護은 藝術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藝術을 創作하는 姿勢로 看護를 만들어 보자.

意慾과 熱意에 찬 活動의 結晶으로 내가 맡은 환자들이 가장 깨끗하고 우리 병실이 가장 아름답고 新鮮하도록 애써 보자.

2. 책임을 완수하고 남에게 괴로움과 손해를 주지 말자. 나로 인해서 간호원장이나 동료들이 불필요한 신

경을 쓰지 말도록 하자.

아름다운 흰복장과 cap으로 간호원의 pride를 느끼는 등시에 더러운 환자를 간호할 때 더운물 한 대야씩이라도 준비해서 씻겨 주지 않고는 못박이는 성벽을 기르도록 하자. 病室이 지저분할 때 얼굴이 확근하는 자극을 받아야겠다. 의사의 處方이 정확하게 실시되지 못해서 책망을 받았거나 분명치 않은 charting으로 事務친영에게서 잔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 對抗하기 보다는 그것을 두번다시 當하지 못할 큰 수처로 알고 배서운 覺悟를 하는 공지와 自尊心을 가져야겠다. 내가 十分 늦으므로 교대시간에 동료에게 不安을 주지 말아야겠으며 公私를 구별해서 機關의 운영을 돕는 것도 간호원의 중요한 책임으로 알아야겠다. 이러한 義務들이 구석구석에서 실천될 때 간호원들의 水準이 實質적으로 높아지며 간호원들의 主張이 받아들여지고 正當한 待遇의 要請이 正當化되는 것이다.

3. 계속해서 배우고 읽고, 기회를 이용해서 自己發展을 꾀하자. 자기가 맡은 職務에만 충실할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가서 組織的인 活動을 통하여 職業的發展과 看護事業 水準 向上에도 이바지하자. 大韓看護協會 會員으로서 會誌 “대한 간호”

하나쯤은 배움지 말고 받아 읽어야 그나마 看護界의 消息과 傾向이라도 알 것이 아닌가? 그리고 外國의 간호잡지, 國內 保健醫藥界에 대한 讀書도 계속해서, 外貌뿐만이 아니라 머리 속까지도 時代感覺에 맞는 간호원이 되어보자. 오늘날 한국 간호원은 韓國의 看護員만은 아니며 世界의 看護員임을 잊지 말자. 한국 간호원 자격으로 世界에 나간다는 것보다 世界의 看護員으로 韓國을 위해서 일하는 격이 되어야겠다.

이상과 같은 우리들의 義務를 잘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權利를 마음 편하게 누리기도 하며 늘려진 權利를 끌어 올리기도 하고 더 크고 더 強한 權利를 主張도 할 것이다. 오늘날 젊은 한국의 간호원들에게는 일다른지 뻗어나갈 機會가 있다. 남이 가질 수 없는 機會를 갖는다는 것은 가장 貴하고 큰 權利中의 하나임을 잊지 말자.

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은 많은 젊은이들이 地方의 小都市와 農漁村까지라도 가서 일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우리 젊은 간호원들이 享有하는 義務와 權利를 갖고 있지 않다. 한살이라도 젊어서 自由롭게 나가서 일할 수 있을 때 내 同族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權利와 義務를 먼저 마음껏 行使해 보자.